

입계동정

現代重工業(株), 차세대 전력보호 감시제어 시스템 개발

現代重工業(株)가 최근 전자식배전반을 이용한 ‘차세대 전력보호 감시제어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 실용화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11억원을 투입, 대형공장이나 빌딩의 受變電制御室에서 현장의 전력상태를 감시하고 전력선의 제어기능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전력보호시스템을 국산화, 수입대체효과가 연간 150억원에 달

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계측기능의 오차를 대폭 줄이고 유지보수의 단순화와 강력한 자기진단 기능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신공항, 고속전철, 연구단지 등 각종 플랜트와 종합병원, 백화점, 호텔, 대형 빌딩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커다란 수요가 기대된다.

LG產電(株), 경량형 예취기 개발

LG產電(株)(代表 : 李鍾秀)가 6개월간 2억원을 투자하여 도시인의 추석성묘시 이용될 수 있는 경량형 예취기(모델명 KTG-240J)를 개발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제품은 세계 최경량인 1.8kg의 엔진을 부착, 예취기 전체의 무게를 7.4kg으로 경량화시켜 도시인, 특히 노약자나 부녀자들도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든 제품이다. 특히 작업봉이 3단으로 분리되어 크기가 낚시 가방보다 작기

때문에 승용차 트렁크 등에 넣고 다닐 수 있어 그동안 휴대상의 문제로 구입을 꺼려했던 도시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이번 제품은 배기량 24cc의 소형 기종으로서 국내 최초의 등걸이식 제품이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사용자가 착용시 밀착성을 개선하여 등 부위의 압박감이 최소화 되도록 제작되었다.

한편 스플라인(Spline) 방식을 채택하여

작업봉의 결합과 분리를 누구나 간단하면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시 진동과 소음도 적어 작업자의 피로도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KTG-240J의 소비자가격은 22~24만원

(부가세 별도)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LG산전에서는 이번 예취기 신제품 개발을 통해 연간 16만대로 추산되는 예취기 내수시장에서 23%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電線(株), 원자력 발전소용 防火 밀폐제 개발

LG電線(株)(代表: 權攸久)는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용 실리콘 防火 밀폐제(Silicon RTV Sealant)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防火 밀폐제는 화재를 방지하고 방사선이나 연기 등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배관이나 파이프, 벽 사이의 틈을 막는 젤리 형태의 재료로 상온에서 굳어지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LG전선이 2년 동안 2억원을 들여 개발에 성공한 실리콘 防火 밀폐제는 실리콘을 원료로 사용해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 수·화력 발전소, 송변전소, 플랜트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은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간 시설물에 사용되는 관계로 전 세계적으로 규격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데 LG산전이 개발한 실리콘 방화 밀폐제는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y 미 보험업자가입자협회)로부터 방사선 차폐시험과 내화시험, 표면연소 특성시험 등을 거쳐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 받았다.

LG전선은 설비가 갖추어지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인데 그동안 미국의 코닝, 독일의 바이엘 등 수입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수입 대체 효과는 1,5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極東電線工業(株), 한국중공업에 UTP 케이블 공급

極東電線工業(株)(代表: 崔炳哲)가 최근

쌍용정보통신이 수주한 한국중공업의 비동기

전송방식(ATM) 근거리통신망(LAN)구축 프로젝트에 국산 무편조(UTP)케이블 및 광케이블과 허벨사의 LAN시스템 접속자재 등을 일괄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극동전선공업은 국내 UTP케이블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AT&T사를 제치고 이번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국산 제품으로는 최대물량의 UTP케이블을 공급하게 됐으며 광케이블 및 허벨사의 LAN시스템 접속자재도 모두 공급키로 했다.

쌍용정보통신이 지난 5월 수주한 한중 ATM LAN프로젝트는 오는 9월까지 53억 원이 투입되는데, 극동전선은 이번 프로젝트에 1천57km의 UTP케이블을 비롯 옥내의

용 광케이블, 그리고 지난 1월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허벨사의 LAN시스템 접속자재를 도탈솔루션으로 제공한다.

극동전선 관계자는 『이번에 유수의 케이블 업체를 제치고 국산 UTP케이블을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품질이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중측에서 네트워크 공사 감리회사와 함께 UTP케이블 생산라인을 방문해 품질을 검사한 결과 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동사는 UTP케이블을 적색, 오렌지색, 청색, 회색 등으로 색상을 다양화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UTP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향후 국산 UTP케이블의 공급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영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榮豐産業(株), ISO 9001 인증 획득

榮豐産業(株)(代表: 白鍾萬)가 한국품질보증원으로부터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에 동사가 획득한 것은 설계/개발, 제조·설비 및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 모델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고객 만족, 품질 만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체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고객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고 아울러 제품 및 기

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품질경쟁력을 제고시켜 제품의 고급화에 박차를 가할 ~~뜻이다~~ 수 있게 될

한편 동사는 '82년에 영풍물산으로 설립 GENERAL ELECTRIC CO.,의 독점 대리점 계약 체결을 인연으로 시작하여 '93년에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전기기기 제조에 참여하였다.